

스포츠에 불어닥친 신종코로나 '광풍'

도쿄올림픽 예선 개최지 변경·AFC는 무관중 경기 한국 여자농구 세르비아서 최종예선... '시차' 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 등 스포츠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이 개최권을 얻은 2020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의 개최지를 바꾸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는 무관중으로 치른다.

여자농구와 여자축구, 복싱 등 중국에서 올림픽 예선을 치르려던 종목은 개최지를 세르비아, 호주, 요르단으로 바꿨다.

가장 먼저 개최지 변경을 결정한 종목은 복싱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복싱 태스크포스(TF)팀은 26일(한국시간)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3월 3~11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복싱 종목의 도쿄올림픽 예선은 애초 2월 3~14일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개최 시점뿐 아니라, 개최지도 요르단으로 바꿨다.

AFC도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B조 예선을 중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에서 치르기로 했다.

올림픽 출전권에 도전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를 놓고 중국, 호주, 태국, 대만이 경쟁하는 이 대회는 애초 2월 3~9일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결국 중국을 벗어난 곳에서 열리게 됐다.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도 원래 개최 예정지인 중국 광둥성 포산이 아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다. 대회 일정은 2월 6~9일로 변화가 없다.

베오그라드도 변경된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C조 경기다.

4개 팀이 한 조가 돼 풀리그를 펼치는 이번 최종예선에서 세계랭킹 19위인 한국은 중국(8위), 영국(18위), 스페인(3위)과 한 조에 속했다.

한국은 내달 6일 스페인과 1차전을 시작으로 8일 영국, 9일 중국과 차례로 맞붙을 예정이다.

장소가 세르비아로 바뀌면서, 한국 여자농구는 '시차 적응'이라는 변수와도 싸워야 한다.

중국 항저우에서 2월 12~13일에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취소됐다.

3월 13~15일에 예정된 중국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세계육상연맹은 신종 코로나 감염이 3월에도 찾아들지 않으면 세계실내육상선수권 개최지와 개막 시점을 바꾸거나, 대회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클럽 대항전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중국 상하이의 위안선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28일 열리는 상하이 상강과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는 관중 없이 맞대결한다.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AFC, 참가팀, 상하이축구협회가 논의해 관중 없이 경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진영을 누가 잡을까?” 견고한 랭킹 1위

올림픽 출전 결린 순위 관심

LPGA는 “고진영이 견고한 1위로서 새 시즌에 돌입하는 가운데 고진영 뒤에서 많은 순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고진영을 따라잡으려던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여러 대회에서 우승해야 한다면서 오는 4월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PGA는 “올림픽 출전권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도 그랬듯이 한국”이라고 전했다.

한국 여자골프는 도쿄올림픽에 4명을 내보낼 수 있는 가운데 고진영과 박성현, 김세연과 세계랭킹 8위 이정은(24)이 가능성을 높여냈다.

여기에 12위 김효주(25)와 리우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16위 박인비(32), 18위 유소연과 20위 양희영 등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골프계는 세계랭킹에 주목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출전 선수는 6월 29일 발표되는 톨렉스 랭킹에 따라 정해진다. 톨렉스 랭킹은 여자골프 세계랭킹의 이름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는 28일 홈페이지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톨렉스 랭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일인자인 고진영(25·사진)의 입지는 견고하다고 보도했다.

28일 발표된 랭킹에서 고진영의 포인트는 8.84점으로, 2위 박성현(27)의 6.25점보다 2.59점 많다.

2위 박성현과 18위 유소연(30·3.61점)의 차이가 2.64점인 점을 고려하면 고진영이 얼마나 확고하게 1위 자리를 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카타르에 막힌 우승의 꿈 제1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 한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의 김진영(맨 왼쪽)의 공격을 카타르 수비가 막고 있다. 2012년 이후 8년만의 대회 우승을 노린 한국 남자핸드볼 대표팀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한국 男핸드볼,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제1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강일구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27일(현지시간) 쿠웨이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카타르와 결승에서 21-33으로 졌다.

2012년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패권 탈환을 노렸지만 후반 중반 이후 점수 차가 벌어지며 무너졌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대회 상위 4개국에 주는 2021년 이집트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또 2014년과 2016년 대회에서 연달아 4강 진출에 실패했고 한국에서 열린 2018년 대회 3위에 그쳤으나 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 결승에 다시

오른 것에 위안을 삼게 됐다.

카타르는 아시아선수권 4회 연속 우승으로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오는 4월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 노르웨이, 브라질, 칠레와 2장의 올림픽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 남자 핸드볼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 대회에는 본선행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맨유 레전드 '루니' FA컵서 친정팀과 격돌 가능성 높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웨인 루니(35·더비카운티)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한국시간) FA가 발표한 2019-2020 FA컵 5라운드(16강) 대진을 보면 루니의 현 소속팀인 챔피언십(2부 리그)의 더비카운티는 노샘프턴과의 32강전에서 승리하면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와 맞붙게 된다.

2002년 에버턴에서 프로로 데뷔한 루니는 200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스타로 거듭났다.

맨유에서 13시즌을 뛰며 정규리그에서만 393경기에서 183골을 터뜨려 맨유의 전설로 인정 받았다.

전성기를 맨유에서 뜨겁게 보낸 루니는 미국프로축구(MLS)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듯이지만 지난해 여름, 돌연 더비카운티와 '플레이잉 코치'로 계약하며 잉글랜드 무대 복귀를 선언했다. 복귀 무대였던 반즐리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도움을 올려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루니가 맨유의 까마득한 후배들을 상대하는 '백매치'가 성사된다면 더비카운티가 내달 5일 열리는 노샘프턴과의 FA컵 32강 재경기에서 승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2월 한달 80개 경주 시행

한국마사회 랫츠런파크 제주는 오는 2월 한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80개 경마가 제주에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0개 경주는 서울과 부산경남으로 위성 중계된다. 하루 총 발매

경주 수는 금요일 19개, 토요일 20-21개다.

금요일 첫 경주는 오전 11시 30분 시작되며, 마지막 경주 출발시간은 오후 6시이다. 2월 경마 일수에 포함되는 1월 31일 마지막 경주는 오후 5시 35분 출발한다.

토요일 첫 경주는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는 오후 6시 출발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TO Be One! Number one 증양!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2020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

희망찬 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3만여 동문 및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신년하례회·정기총회·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총동창회 임원				회기별 회장					
직	책	성명	회기	회기	성명	회기	성명		
명예회장	오헌봉	8	인재육성부회장	송성하	26	1	양두길	24	백영교
직전회장	진찬순	18	재정부회장	고석만	27	2	김태능	25	김완수
수석부회장	홍창구	21	장학부회장	박남규	27	3	김석진	26	윤덕희
감사	백영중	12	조직2부회장	윤영덕	27	4	정윤승	27	고경주
	고희철	27	정보네트워크부회장	강경보	28	5	장군천	28	이정호
	윤정하	31	사업2부회장	양경택	29	6	김세봉	29	임병준
여성동문회장	박재량	24	직능부회장	안재형	30	7	강무홍	30	홍정기
대외협력부회장	문준현	21	지역총괄부회장	이동학	30	8	양상원	31	윤영도
기획조정부회장	유재호	22	경제부회장	부동석	31	9	박경진	32	신영철
총무부회장	송부윤	21	의전미디어부회장	신명환	31	10	김홍기	33	신재용
지원부회장	김정곤	20	체육부회장	이호상	31	11	한정호	34	이경배
관리부회장	고법환	20	복지부회장	홍권일	31	12	문상훈	35	김태경
홍보부회장	양대영	21	모교지원2부회장	홍영호	32	13	김영희	36	황경남
총외부회장	고봉학	24	교육부회장	강철민	32	14	양두현	37	이상훈
봉사부회장	한태만	22	청년부회장	김남도	33	15	김예직	38	정이홍
모교지원1부회장	고희현	23	30대기회장	고창빈	33	16	이창수	39	김용택
사업1부회장	황경남	36	40대기회장	김현수	40	17	홍선욱	40	박상진
윤리부회장	김지중	24	사무국장	이복재	35	18	부석규	41	박우철
문화부회장	김승훈	25				19	변창익	42	오영탁
조직1부회장	장지호	26				20	양봉환	43	강태훈
						21	고동환	44	조규봉
						22	문창우	45	황신제
						23	김영옥		

일시 : 2020. 1. 30. (목) / 장소 : 메종클래드 연회장

1부 정기총회(18:00) 2부 회장 이·취임식(18:40) 3부 만찬

연락처 총동창회사무국 ☎ 758-5335, 사무국장 이복재 (35회)

참가비 ₩20,000

자랑스런 동문상

9회 박경진 21회 현승중 23회 강태식 23회 최명중 26회 김창국
27회 김영호 30회 김승범 31회 김현진 31회 김춘경

제주중앙고등학교총동창회 취임회장 **홍 창 구**(21회) · 수석부회장 **유 재 호**(22회)